東亞日報
發行所 東亞日報社
編輯兼發行人 宋鎭禹
印刷人 梁文鉉

社說

國際平和의 方向

一

一九一五以後 우리에게 提示된 啓蒙的 信號는 封建的, 帝國主義的 殘滓를 淸掃하자는 것과 人民을 民主々義化식히자는 것이였다. 우리의 現實的 生活面에 殘存하는 惡要素의 淸算問題가 消極的 價値의 提示라 하면 民主々義化問題는 우리가 指向할 바 積極的 價値의 提示라 할 것이다. 그러나 民族主義도 民主々義, 共産主義者도 民主々義를 提唱하니 엇던 것이 眞實한 民主々義인지 判斷하기 어려운데다가 「進步的」이니 「新」이니 하는 形容詞는 더욱이 混亂을 助長하야 大衆은 依然히 去就할 바를 몰으니 좀더 正確하고 積極的인 方向指示가 要望되는 所以라 할 것이다.

二

民主議院은 이번에 二十七政策을 發表하야 民主憲法에 依한 國民의 自由平等權을 約束하고 計劃經濟에 依한 大企業의 國營을 約束하고 土地의 均等分配와 累進相續稅, 八時間勞働制, 最低賃金制, 失業保險制, 社會保險制, 公共厚生施設의 國營, 國費負擔에 依한 義務敎育制와 民族文化의 助援, 人類平和를 爲한 友好外交와 互惠通商等을 約束하였다. 朝鮮에 將次 實施될 以上 政策은 美英國의 政策보다 進步的이요 國際民主々義理念의 具顯이라 할 것이다. 美英과 같은 傳統的 矛盾을 갖지 않은 解放朝鮮이 新鮮發刺한 方向을 指向함은 當然하다 할 것이다. 그 方向은 徹頭徹尾 無血革命으로서 階級對立의 國內矛盾을 未然에 防止하고 國際平和에 寄與하자는 國際民主々義 路線에 立脚한 것이다. 人類는 累次大戰의 慘禍를 經驗하였으니 [illegible] 亞西亞革命은 그 目的이 人民의 自由平等이였고 無産階級의 有産階級에 對한 反抗이 아니엿든가. 人間의 人間에 對한, 民族의 民族에 對한 搾取와 抑壓의 不合理를 除去함이 없는 人類平和는 砂上樓閣에 不過할 것이다. 第一次 第二次 世界大戰을 通하야 體驗한 人類는 이 以上 流血의 慘事를 願치 않으니 民族自決과 植民地撤廢는 當然한 歸結이요 國際聯合機構를 强化하야 相互侵害를 制禦하고 人類全體의 人權과 基本自由를 尊重하야 人類平和의 共同目的을 達成하려는 것이다.

三

國際民主々義는 人類共同理念의 表現이요 各民族 [illegible] 原則下에 國家政策으로 解決하는 同時에 國際無産階級과 被壓迫民族의 解放이란 名目下에 國際平和를 攪亂하려는 一切의 策動을 封鎖하여야 할 것이다. 일즉이 米國共産黨이 國際共産黨에서 脫退한 것은 여러가지 理由가 있겟지만은 가장 重要한 理由는 國際共産黨의 蘇聯主義가 반다시 國內無産階級의 利益에 合致하지 않은다는 것이다. 國內無産階級問題는 民族自決의 原則下에 國家政策으로 解決 [illegible] 라고 할 것이다. 蘇聯會主義理念은 蘇聯許가 아니고 各國家 特殊事情下에 [illegible] 니 民族國家로서 安全과 繁榮을 누릴 것이다. 이런 民族 互協調에 依하야 [illegible] 達成하려는 것이 [illegible] 聯合機構의 强化가 [illegible] 로 提唱되는 所以라 [illegible]

政權樹立의 三分科會

美蘇共同議長制로 組織

世界의 耳目을 끌고 三千萬民族의 至大한 關心裡에 續會中인 美蘇共同委員會는 三十日正午에 共同聲明書 第三號를 다음과 같이 發表하였는데 이를 通해보면 朝鮮의 過渡政權樹立의 具體的인 方策이 明示되였으며 이를 準備討議하기 爲하야 三分科會가 組織되엿다 한다. 이로써 一般은 자아내고 있든 美蘇共同委員會는 過渡政權樹立이라는 目的을 確信케 하는 다할 것을 寫眞 上은 美國側代表委員 ... 以上의 問題에 關한 한 數의 分科委員會를 共同委員會에 組織함이 必要하다고 ... 로 三分科委員會를 設置 ...

◇第一階段第一條의 實踐에 關한 研究의 討議

共同議長 S·K 치알킨氏(蘇聯代表)

美國代表 C·W·데이어氏

◇第一階段第二條의 實踐에 關한 提案의 討議

共同議長 蘇聯代表 N·G 레베데푸 少將

美國代表 F·H·부리톤 大佐

◇第一階段第三條에 關한 準備討議

共同議長 蘇聯代表 G·M·바라소노푸氏

美國代表 A·C·번스氏

以上 諸分科委員會의 共同議長들은 各分科委員會들 援助할 技術家와 顧問을 指定함

美國首席委員 A·V·아ー놀드 少將

蘇聯首席委員 P·F·스티코푸 中將

美蘇共同委員會

共同聲明書第三號發表

一九四六年三月廿五日부터 廿九日까지 德壽宮에서 열닌 美蘇共同委員會々議는 蘇聯首席委員스티코ー푸中將의 司會로 莫府三相會議에서 決定된 第三條朝鮮問題 第二項第三項에 關하야 詳細히 研究하고 檢討하엿다. 美蘇兩代表間에 이 問題에 對하야 研究討議한 結果 共同委員會는 以下의 順序로 二階段에 分하야 進行하기로 決定하얏다.

第一階段 莫府三相會談 決定第三條第二項의 實踐

第二階段 莫府三相會談 決定第三條第三項의 實踐

第一階段은 以下의 諸問題를 包含함

(一) 民主主義政黨과 社會團體와 協議할 條件及順序

(二) 朝鮮民主主義臨時政府의 機構及組織原則 臨時憲章에 對한 提案의 準備討議

(三) 將來朝鮮民主主義臨時政府의 政綱 及適宜한 法規에 關한 準備討議

(四) 朝鮮民主主義臨時政府의 閣員에 對한 提案에 關한 討議

三相會議決定의 第三條二項과三項

【註】 莫府三相會議에서 決定된 第三條第二項과 第三項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第二項 過渡政權으로서의 臨時政府를 樹立하는 것에 援助하기 爲한 對策을 講究하고저 미리 南部朝鮮의 美軍司令官과 北朝鮮의 蘇聯軍司令官의 代表로 共同委員會를 組織하며 이 具體案作成에 있어 同委員會는 朝鮮의 民主主義的 政黨과 社會團體와 반드시 協議를 한다 그리고 이 委員會의 提案은 共同委員會의 代表인 二國의 最終的 決定을 取하기 前에 蘇聯邦, 大英帝國, 中國政府의 審議를 바더야 한다.

◇第三項 共同委員會는 朝鮮臨時政府와 朝鮮民主主義團體를 參加시켜 朝鮮民族의 政治的 經濟的 進步와 對한 援助와 協力(信託)의 對策을 講究한 提案은 朝鮮의 臨時政府와 協議한 後 美國, 蘇聯邦, 大英帝國, 中國의 五個年以內의 (信託 後見)에 對한 共同協議를 바더야 한다.

戰爭은 人種과 民族의 混合을 招致

世界文明誕生과 併行·世界平和를 獲得

印度副總裁 라다크리쉬난 博士의 演說

【紐育廿九日發AP合同】印度副總長이고 「헌두」大學副總長이고 「옥스포드」大學의 東洋哲學 敎授인 사베팔리 라다크리쉬난氏는 「라듸오」를 通하야 다음과 같이 演說하엿다

現時代에 있어서는 어떠한 나라도 孤立하야 生存할 수 없는 것이다 戰爭은 人種과 民族交流에 큰 役割을 하고 이로 因하야 人種과 民族의 混合에도 큰 影響을 주엇다 東西는 歷史上 未曾有의 接觸을 보게 되여 東洋과 西洋文明은 世界文明의 範圍를 超越하야 現在에 存在하게 되엿다 이 接觸한 結果로 東西兩文明은 世界文明 誕生과 併行하야 世界平和를 獲得할 것이고 이 現實에서 만이 아니라 過去에 있어서도 政治的 必要性에 要求되는 것이다 人生은 人的인 것으로 우리가 到達하는 目的은 遠大하며 또 그를 要하고 있다 그 精神的 復活이 二次에 亘한 世界共同의 統一을 爲하였다 우리는 原理文明의 長點을 表示할 것이다

十一部의 五段階로

軍政廳內機構를 改編實施

軍政廳에서는 前官房, 各局의 名稱을 改稱하고 部分的 對內改編을 하야 三月二十九日附法令第六十四號를 公布日부터 實施한다고 發表하엿다 卽 各局은 모다 部로 고치는데 國防司令部는 國防部로 交通局은 運輸部 學務部는 文敎部等 十一部와 그 미 課, 係, 班의 五段階를 두고 前官房은 會計處, 總務處, 人事行政處 企劃處, 地方行政處, 管財處(敵産管理課의 七處) 를 두고 그미 課, 係, 班을 둔다 그리고 各其監督官의 職名엔 長을 부치고 그 補佐役에는 處次長, 或은 副局, 署, 課, 係班長이라 한다

陸海空軍最高首腦十名으로

美大統領의 軍事顧問團을 新設

【위싱톤卅日UP發朝鮮】 트루만美大統領은 二十八日 陸海空軍의 最高首腦로 된 軍事 「부렌트라스트」를 設置할 것을 發表하였다 美國에 勝利를 招來한 이들 將領은 그 智囊을 今後는 美國々防計劃作成에 動員하게 될 것이다

오는 四月제네바서

國際聯盟解散總會

【華盛頓UP發朝鮮】 오는 四月八日 國際聯盟總會가 瑞西제네바에서 開催되여 解散을 決議하게 될 것인데 이것으로 世界主要國이 道義的 信條만으로 世界平和를 維持하라는 最初의 企圖는 끗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國際聯盟의 主要使命은 聯合國機構가 引繼하게 될 것이나 國際聯盟은 第一次世界大戰後 우드로 윌손 美國大統領의 發案으로 世界平和를 維持키 爲하야 된 것인데 正式成立 二個月前인 一九一九年十一月 美國上院에서 拒否當하게 된 때부터 그 存在는 疑問視되였든 것이다 그後 國際聯盟은 一九二五年 제네바 軍縮會議 滿洲事變, 伊太利의 에치오피아 侵略等을 通하야 武力의 背景이 없이 自發的인 軍備撤廢나 侵略防止를 하는 것은 可望이 없다는 것을 切實히 느끼엿다

설수설횡

▼極則反하고, 窮하면 通하고, 一月小, 一月大로 陰地가 陽地되나니. ▼남을 누르던者ㅡ눌리고, 쓰러진者ㅡ일어설者ㅡ 못고, 나고, 蔭死櫻木을 베여버리려 두워두고ㅡ ▼時節만 다 朝鮮에 特히 新聞이 난 歲月이야! 春雨에 芳草같이 叢生續出하는 바람에 古木에 새싹처럼 本報도 再刊 되고 友社도 續刊ㅡ ▲同慶에 相賀요, 同病에 相憐으로, 그 몹쓸 削除, 押收, 停刊等의 强壓에 絶脈될 번 廢刊의 死境을 격근지라. ▼新發行 諸紙의 그 當時에 생겨나지 않엇슴을 祝福하는 同時에, 스사로 실症이 낫지 안는 限, 新聞을 못 나오게 하는 아무런 惡戱도 다시는 없으리라고 긋게 마련더니, ▼풀리는 꾀머리서 病이 된다고, 五日間 쉬고 보니, 口中에 社告와 같은 事情으로 生荊棘이 온지 舌에 橫說

一日一詠

삼천리 문화인이
모아안저 맹세하되
대장부 붓을 들어
자주독립 찻지않고
무궁화 자손만대에
압길어이 밝히리

(文藝家大會日에) 璧石

謀略宣傳에 속지말라

李博士의 政治動向은 一貫

妙한 時局을 利用하여 一部反動分子는 李承晩博士와 金九先生 金奎植博士를 離間 中傷하는 浪說이 만흔데 이 謀略을 封殺하기 爲하여 敦岩莊 當局에서는 『本意는 아니나마 몇가지 點을 明白히 하겟다』고 李博士의 政治的 動向을 다음과 같이 論하였다

요지

一、 議長辭任의 意向은 純全히 身病으로 因한 것으로 國內흔은 國際的 政治性은 絶無하다

二、 博士는 信託을 一貫 排擊한다 信託을 支持하는 것이 民主々義國際路線이라 하야 심지어 信託支持라는 名稱으로 相會議支持라는 말을 假裝하야 大衆을 欺瞞하엿으나 兩者를 混同하여서는 안된다

三、 李博士는 親日派, 財閥家, 大地主를 擁護하고 勤勞大衆을 無視한다고 宣傳하나 博士의 過去半世紀의 獨立運動이 一部階級을 擁護하려는 것이 아닐 것이다

四、 博士는 反蘇反共도 아니오 親美도 아니다 단지 獨立의 벗이라면 歡迎하고 獨立의 妨害者라면 排擊할 뿐이다

五、 自己陣營이 아니면 親日派 反民主的 팟쇼反動分子라고 中傷하나 賢明한 大衆은 抽象的인 謀略에 속지안키를 바란다 (寫眞은 李承晩博士)